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중등 영어 교사의 신념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草 珉

2017年 8月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중등 영어 교사의 신념 연구

指導教授 金 鍾 勳

金 草 珉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6月

金草珉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7年 8月

<국문초록>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중등 영어 교사의 신념 연구

金 草 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鍾 勳

이 논문은 최근 제2언어 교사교육 영역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언어교사의 신념이라는 주제를 영어 발음교육과 연관시켜 한국의 중등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직 영어교사들이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등 영어교사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서면 인터뷰에 응한 57명의 응답 자료들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영어 발음이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기능이며 수업시간에 영어 발음 교육을 비중있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학생들의 영어 발음은 원어민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 가능한 수준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과서 안팎으로 발음 지도 활용 자료들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음 지도 기법에 대해서는 발음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원어민의 음성을 녹음한 테이프 사용과 교사 자신의 음성으로 시범을 보인 후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장 강세와 억양 및 리듬에 지도의 초점을 두거나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을 비교 설명하는 활동과 유창성에 기반을 둔 발음 평가 방법에 대한 신념도 비교적 높았다. 반면에 최소대립을 통한 발음 지도,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성 지도와 정확성

※ 본 논문은 201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에 의한 발음 평가 및 한국식 말투의 사용 여부에 의한 발음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음 학습전략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교사들의 신념에 관한, 학생들이 칭찬과 격려하며 도와주거나 긴장이나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정의적 발음 학습 전략 지도에 대한 신념이 가장 높은 반면 상위인지 전략에 대한 신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영어교사의 발음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 교과서 속 발음 지도 자료가 적절하다고 한 문항, 의사소통 중심 발음지도 활동에 대한 문항, 한국식 말투에 의한 발음 평가에 대한 문항, 연관된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연상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노래나 리듬을 이용하여 도와주는 기법, 발음을 반복해서 따라하도록 하는 기법,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짝을 지어 발음을 연습하도록 도와주는 기법에 대한 문항으로 총 9개 문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 중 6문항에서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교사의 경력에 따라 발음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영어 수업 시간에 발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항,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제를 활용하는 기법, 문장의 강세와 억양, 리듬에 초점을 둔 지도, 학생들의 발음 오류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 연관된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노래나 리듬을 이용하여 도와주는 기법, 발음을 반복해서 따라 하도록 하는 기법, 발음을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짝을 지어 발음 연습하도록 도와주는 기법의 총 10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10개의 문항에서는 비숙련 교사들이 숙련 교사들보다 더 강한 신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57명중 27명의 5년 이상의 숙련 교사들은 발음지도에 대한 비중을 거의 두지 않고 있으며, CD나 음성 녹음테이프 혹은 자신의 음성을 따라 반복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명의 교사들이 음성, 음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발

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한국어 발음과도 비교하면서 지도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30명의 비숙련 교사들은 대체로 발음지도를 다른 영어의 기능과 연관시켜 지도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동료끼리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에게 올바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팝송이나 영상으로 발음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게다가 두 집단은 모두 학생의 발음 수준이 원어민과 가까운 발음을 구사하는데 있는 것이라기보다 의사소통 시 이해가능한 수준의 발음을 구사하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비숙련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의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정의적 전략 사용을 더 선호하였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차	iv
표목차	vi
그림목차	vi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2.1 신념과 교사 신념의 정의에 대한 고찰	4
2.2 학습전략과 발음 학습전략의 정의에 대한 고찰	6
2.3 영어교사 신념 관련 선행 연구	10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5
3.1 참여 대상	15
3.2 자료 수집 방법	15
3.2.1 설문지의 구성	16
3.2.2 자료 분석 방법	18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9
4.1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일반 신념	19
4.1.1 영어 발음 및 발음 지도에 대한 견해	19
4.1.2 발음 지도 활동 및 평가에 대한 견해	21
4.1.3 발음 학습전략별 지도에 대한 견해	23
4.2 교사의 성별에 따른 발음교육에 대한 신념	29

4.3 교사의 경력에 따른 발음교육에 대한 신념	32
4.4 개방형 질문 분석 결과 및 논의	37
V. 결론 및 제언	42
5.1 요약	42
5.2 교육적 시사점	44
5.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45
 참 고 문 헌	 47
ABSTRACT	51
부록	54

표 목 차

<표 1> Pronunciation Learning Strategies(Based on Petersen, 2000)	9
<표 2> 참여자의 인적 배경	15
<표 3> 설문지의 구성	17
<표 4> 발음과 지도에 대한 견해	19
<표 5> 교수 학습 활동 및 평가에 대한 견해	21
<표 6> 기억전략 지도 양상	23
<표 7> 인지전략 지도 양상	24
<표 8> 보충전략지도 양상	25
<표 9> 상위인지전략 지도 양상	25
<표 10> 정의적 전략 지도 양상	27
<표 11> 사회적 전략 지도 양상	27
<표 12> 남녀 교사간 신념 차이 1	29
<표 13> 남녀 교사간 신념 차이 2	32
<표 14> 경력별 신념 차이 1	33
<표 15> 경력별 신념 차이 2	35

그 립 목 차

<그림 1> 학습 전략 지도 활용 양상	28
-----------------------------	----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사의 교육적 신념(beliefs)은 교수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에 대한 신념은 수업 행동에 그대로 반영되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자신의 신념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Pajares, 1992) 그것을 통해 교실에서 교육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갖는 신념은 수업 내용과 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고 있다(이진영, 2017). Richards(1998: 66)에 의하면, 교사들의 행동은 그들의 생각에 의해 지배받으며, 그들의 이론과 신념은 많은 교육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필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교육 이론에서 교사신념이 중요해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언어교사들이 교수 학습활동 등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또 실제로 가르치는 수업활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제2언어 교사와 외국어 교사의 신념과 관련된 연구는 현재 200여 편 이상으로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Borg, 2006). 이들의 대부분은 제 2언어 또는 외국어 교사의 신념이 실제 교수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Borg, 2006; Kagan, 1992), 영문법 지도나 어휘 지도에 대해 영어 교사가 가진 신념이 무엇인지, 그 신념이 실제로 영어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Johnson, 1992)

영어교사의 영문법 지도와 어휘지도에 대한 신념 연구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막상 실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영어교사들이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영어교사가 영어 발음교육에 관해 갖는 신념은 영어 발음을 실제로 가르치는 교수 행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들의 영어 발음 능력 향상을 기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영어교사의 신념 연구는 발음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어 교사가 영어 발음의 중요성과 발음지도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에 대해 어떤 신념을 보이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해 영어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배우면서 사용하는 학습전략(learning strategies) 과 연계시켜 발음 교육에 대한 영어교사의 신념을 탐구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영어교사의 신념은 교육경력(teaching experiences)이나 성별(gender)에 따라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숙련 교사와 비숙련 교사 및 남녀 교사 간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해 어떤 신념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도 모자란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최근 제2언어 교사교육 영역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언어교사의 신념이라는 주제를 영어 발음 교육과 연관시켜 한국의 중등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직 영어교사들이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신념과 교사 신념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그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선행 연구를 요약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연구 참여자와 자료수집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영어교사들의 영어 발음에 대한 일반 신념과 성별, 경력에 따른 신념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한다. 제5장은 앞서 논한 바를 요약 정리하는 결론이 되겠다.

1.2 연구 문제

본 논문의 근본 의도는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해 현직 영어교사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지도하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답하게 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교사들은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영어 교사들은 성별의 차이에 따라 영어 발음 지도에 관한 신념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영어 교사들은 경력의 차이에 따라 영어 발음 지도에 관한 신념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본 장은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신념과 교사 신념(teacher beliefs) 및 학습전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신념과 교사 신념의 정의에 대한 고찰

일반적으로 신념(beliefs)이란 명제(proposition)의 진위(truth or falsity)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말한다(Borg, 2011). 신념은 자신이 가진 가치나 사상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상태(condition)를 말하며, 어릴 때 형성되기 때문에 변화하기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신념은 어떠한 진술에 대해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알고, 믿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신념은 태도(attitudes)와 구분하여 사용해 왔다. 태도는 어떠한 사실이나 상태에 대하여 개인이 취하는 정신적인 자세(mental position), 느낌(feeling) 혹은 감정(emotion)을 말한다. 예를 들어, Tatto와 Coupland (2003)는 태도(attitudes)란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능동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대상(object)과 관련된 신념(beliefs), 감정적 반응(emotional reaction) 그리고 행동 경향(behavioral tendencies)을 포함하며, 넓은 의미로는 행동(act)에 대한 정신적 경향이나 특정한 방법에 있어서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보았다.

그러나 제2언어 교사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에서는 태도를 신념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Richardson(1996: 104)은 신념을 인식(perceptions), 태도(attitudes), 개념(conceptions), 이해(understanding), 실용 지식(practical knowledges)과 같은 의미로 보고 한 개인의 행동(action)을 이끄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비슷하게 Pajares(1992: 309)는 신념을 개인이 갖는

태도, 가치(values), 판단(judgements), 견해(opinions), 개념(conceptions), 이론(theories)을 비롯하여 내적 사고 과정과 활동 전략 등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They travel in disguise and often under alias-attitudes, values, judgements, axioms, opinions, ideology, perceptions, conceptions, conceptual systems, preconceptions, dispositions, implicit theories, explicit theories, personal theories, internal mental processes, action strategies, rules of practice, practical principles, perspectives, repertoires of understanding, and social strategy.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Freeman (2002: 2)은 교사 신념(teacher beliefs)을 효과적인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생각이나 사고 과정(thought processes) 및 정신적 삶(mental lives)으로 정의한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이론(personal theories)과 가정(assumptions) 및 가치(values)와 이미지(image)에 대해 기술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사 신념이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 및 학습자 등에 대해 사실이라 믿고 (believe), 생각(think)하며 알고(know)있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Borg(2003: 81)는 교사 신념을 교수와 교사, 학습과 학습자, 주제와 교육과정, 교수자료, 교실활동에 대해 교사가 갖는 믿음, 지식, 태도, 이미지 등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Teacher cognition.... beliefs, knowledge, theories, attitudes, images, assumptions, metaphors, conceptions, perspectives, about teaching, teachers, learning, students, subject matter, curricula, materials, instructional activities, self.

그러므로 교사 신념이란 교실에서 교사의 행동을 이끄는 사고의 과정(thought processes)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Richardson, Tidwell & Lloyd,

1991). 바꿔 말해 교사가 교실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구현되는 생각이나 지식의 총체가 교사 신념이라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교사 신념이란 개념을 종합하여 영어교사 신념이라는 용어를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내용(subject matter)과 교수 학습 활동(instructional activities) 평가(evaluation) 등의 여러 영역에 대해 교사가 갖고 있는 생각(thinking)과 지식(knowledge) 및 믿음(beliefs)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2 학습전략과 발음 학습전략의 정의에 대한 고찰

앞에서 필자는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영어교사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과정에서 영어 학습자의 발음 학습전략과 연계시켜 교사가 갖는 발음 지도 활동에 대한 신념을 고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습자들이 발음 학습을 즐겁게 하기 위한 행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영어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려 하는 것이다. 영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발음 학습전략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해당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언어 학습전략(learning strategies)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먼저 학습전략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발음 학습전략의 정의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Oxford(1990 : 8)에 의하면 학습전략은 학습을 더 쉽고 빠르고, 즐겁고, 자기주도적이며, 효과적이고 새로운 상황에 더 전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가 취하는 특수한 행동이다. 한마디로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학습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 방법 및 단계를 말한다.

1970년대부터 학습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 접어들어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Oxford(1990)의 연구는 학습전략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Oxford(1990)의 학습전략은 크게 직접전략(direct strategies)과 간접전략(indirect strategies)으로 구분된다. 직접전략은 기억전략(memory strategies),

인지적 전략(cognitive strategies), 보상전략(compensation strategies)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전략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 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전략으로 이미 아는 것과 새로운 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과 영상이나 소리, 또는 동작 활용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인지적 전략은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략으로서 연습이나 의미 전달 또는 분석 및 추론의 전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상적 전략이란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대한 지식의 결핍을 보충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써 모르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추측하거나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완곡한 표현 및 몸짓을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간접전략은 상위 인지적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ies),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인 3가지로 분류가 된다. 먼저 상위 인지적 전략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정하는 전략으로서 학습계획에 대한 목표 설정과 자기평가 등이 포함되며, 정의적 전략은 학습자가 자기의 감정이나 학습동기 및 학습태도 등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격려 및 감정 상태 점검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전략은 학습자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전략으로서 정정을 위한 질문을 한다든지 서로 협력하여 학습 하는 것 등이 해당 된다.

학습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능력향상을 위한 것이며 위의 여섯 가지 학습전략은 각자의 역할을 한다. Oxford(1990)는 여섯 가지 학습전략 모두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Oxford(1990)의 여섯 가지 학습전략의 정의를 바탕으로 Petersen(2000: 6)은 발음 학습전략을 학습자들이 발음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취하는 단계(the steps taken by students to enhance their own pronunciation learning)라고 지적하고 있다. Petersen(2000)은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을 고찰하기 위해 Oxford(1990)의 학습전략에 의거 12개의 발음 학습전략을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43개의 세부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표 1>과 같다.

<표 1> Pronunciation Learning Strategies (Petersen, 2000 : 26-27)

Oxford's Strategy Group	Pronunciation Learning Strategies	Pronunciation Learning Tactics
Memory	Representing sounds in mem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king up songs or rhythms to remember how to pronounce words ·using phonetic symbols or one's own codes to remember how to pronounce something
Cognitive	Practicing naturalistical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ying to recall how a teacher pronounced something ·trying to recall and imitate a teacher's mouth movements ·listening to tapes/ television/ movies/ music. ·concentrating intensely on pronunciation while speaking ·speaking slowly to get the pronunciation right ·noticing or trying out different TL dialects ·mentally rehearsing how to say something before speaking ·talking with others in the TL ·imitating a native speaker or teacher ·talking aloud to oneself ·talking silently to oneself ·noticing mouth positions or watching lips ·concentrating intensely on pronunciation while listening to the TL ·trying to avoid producing inappropriate native language sounds ·imitating the overall TL sound with native language words for fun
	Formally practicing with so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nouncing a difficult word over and over ·practicing words using flash cards ·practicing saying words slowly at first and then faster ·memorizing and practicing TL phr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peating aloud after a native speaker or teacher ·repeating aloud after tapes ·repeating aloud after television or a movie ·repeating silently ·reading aloud ·doing exercises/practicing to acquire TL sounds ·practicing sounds first in isolation and then in context
	Analyzing the sound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rming and using hypotheses about pronunciation rules ·noticing contrasts between native and TL pronunciation ·listening to pronunciation errors made by TL speakers speaking one's native language
Compensation	Using proximal articulations	
Metacognitive	Finding out about TL pronunc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quiring a general knowledge of phonetics ·reading reference materials about TL rules ·deciding to focus one's learning on particular sounds
	Setting goals and objec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iding to memorize the sounds (or the alphabet) rightaway ·deciding to focus one's listening on particular sounds
	Planning for a language ta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paring for an oral presentation by writing difficult-to-pronounce words very large in one's notes
	Self evalua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cording oneself to listen to one's pronunciation
Affective	Using humor to lower anx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ving a sense of humor about mispronunciations
Social	Asking for h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king someone else to correct one's pronunciation ·asking someone else to pronounce something
	Cooperating with pe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udying with someone else teaching or tutoring someone else

위 <표 1>에서 보듯이 Petersen(2000)이 제시한 발음 학습전략은 학습자들이 발음 학습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이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음지도 할 때 학습자로 하여금 적절한 발음 학습전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습자가 어떤 발음 학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발음 교육에 대한 영어교사의 신념을 다룰 것이다.

2.3 영어교사 신념 관련 선행 연구

영어교사 신념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영문법 지식이나 영문법 지도법 및 실제와 관련시켜 교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다. 예컨대 Farrell과 Lim(2005)은 싱가포르의 경력이 풍부한 두 명의 초등교사가 문법 지도에 대해 갖는 신념과 실제 교실에서의 활동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두 명의 교사는 모두 문법이 초등학교에서 중요하며 가르쳐져야 하고, 학생들은 문법 규칙들과 그 규칙들을 쓰기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법을 가르칠 때 훈련(drilling)이 유용한 도구가 되고 언어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수준에 따라 문법 지도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 교사는 문법 규칙을 직접적으로 명확히 설명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에, 다른 교사는 문법을 다른 영어의 기능들, 즉, 말하기, 쓰기, 읽기에 통합시켜 간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철(2009)은 제주도 내 영어교사들의 문법에 대한 이해와 태도 및 문법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영어교사들은 문법의 개념에 대해서 통사론과 화용론 측면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법이 음성언어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문자언

어에 토대를 둔 지식 및 구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문법이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을 별도로 선택하여 가르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사와 학생들이 가지는 영문법 교수 및 학습에 관한 신념을 비교·연구한 김지원(2014)은 문법 학습의 필요성, 목적, 정의적 태도, 학습 방법과 학습 내용을 묻는 몇 가지 문항에서 교사와 학생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 두 집단은 모두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견해를 보였으나 교사 집단이 학생 집단보다 읽기와 쓰기의 문어 능력 향상을 위해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교사들은 문법 지도와 학습이 영어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지만 두 집단 다 문법이 학생들에게 가장 재미없고 어려운 학습 영역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교사의 신념에 대한 두 번째 연구 그룹은 영어의 읽기 지도에 대해 교사가 갖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Kuzborska (2011)는 리투아니아의 8명의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읽기과정, 읽기 학습, 읽기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신념과 대학교실에서 읽기지도의 실제 및 교사들의 신념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부분 어휘를 강조하고 낭독에 초점을 맞추며 읽기자료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기능 기반 읽기 지도법(skill-based approach)을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교실에서도 이 교수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앞서 Johnson(1992)은 비모국어 영어 화자들을 위해 리터러시 교육(literacy instruction)을 하는 동안 교사 신념과 실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30명의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교사들의 신념이 교실에서 가르치는데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훈련(drill)이나 암기하는 기능 기반 읽기 지도법(skill-based approach)이 읽기지도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는 수업시간에 그러한 기능기반 읽기 지도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하거나 문법적인 규칙을

읽기 지문에서 찾아내면서 지도하는 규칙 기반 지도법(rule-based approach)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실제 교실에서 그런 규칙 기반지도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중점으로 지도하는 지도법이 알맞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는 의사소통 기능 기반 지도법(function-based approach)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사의 신념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해 예비 영어 교사와 현직 영어교사의 견해나 인식을 검토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김종훈(2013)은 예비 영어 교사들이 영어 발음 교육의 목표와 방법 및 활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들은 영어 발음 교육의 목표를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EFL상황에서는 영어 모국어 화자처럼 유창한 발음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자가 화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발음을 습득하는데 두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어 발음을 교실에서 지도하는 방법이나 기법은 종전의 전통적 교수법에서 볼 수 있는 최소대립이나 듣고 따라 말하기 보다는 게임이나, 노래, 그리고 역할극 같은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지도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의 신념을 연구한 이진영(2017)은 영어 발음 지도 전반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 신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목표어 발음(형태)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통해 언어 자체에 집중하면서 의도적, 직접적이고 계획적으로 학습하고, 조음 규칙이나 강세 원리 등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명시적 지도법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우연적, 간접적으로 특정 언어 항목인 발음이나 형태소를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무의식적으로, 즉 학습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시적 발음 지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음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암시적 지도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아울러, 실제로 교사가 되어 발음을 지도 할 때 그와 같은 교수법을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음 교육에 관한 초등 영어 교사의 신념을 다룬 서은실(2016)은 발음 교육에 관한 초등 영어교사의 인식은 무엇이며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발음 교

육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초등 영어 교사 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응답자중 경력별로 3명을 선택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제 측면에서 갈등적 인식 구조를 보이며 역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발음과 발음 교육의 중요성 측면에서 발음교육이 중요하지만 국제적 성공이나 다른 언어기능에 측면과 비교해 덜 중요하다고 보는 상대적, 모순적, 갈등적 인식구조를 보여주었다. 또한 발음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발음 이해도를 설정하면서 발음 연습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게다가, 영어교사의 발음은 좋아야 하지만 굳이 영어 모국어 화자가 아니어도 발음 영역을 지도할 수 있다고 여기며 교사 자신의 발음 교육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발음 교육 지도 방법은 의사소통적 과제 맥락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발음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분절음과 초분절음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제 면에서 서로 연계성을 갖거나 또는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여 복잡적이고 모순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영어교사의 신념 연구는 교사의 경력과 성별에 따라 어떤 신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로 그 주제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Tsui(2009)는 비숙련 교사들(unexperienced teachers)이 숙련 교사들(experienced teachers)과 비교하여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지도를 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수업에 사용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Gatbonton(2008)은 초보(novice)교사와 숙련(experienced)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교육학적 지식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한 결과, 초보 교사들은 숙련 교사들에 비해 활동적인 지도 방법뿐만 아니라 단순히 필기하는 수동적인 지도방법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란의 외국어 고등학교 남교사(35명)과 여교사(85명)를 대상으로 발음 지도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Shahriari와 Dastgahiam(2014)의 연구에서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더 많은 구두 기법과 지도 자료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즉, 그들은 구두로 발음 반복, 개별 발음에 집중 지도, L1과 L2발음 비교, 발음의 정확성, 동료간 발음 연습, 구두

평가 등의 방법에서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바 있다.

이처럼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경력과 성별에 따라 신념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발음지도에 있어서도 교사의 성별과 경력에 따라 신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영어 교육과 관련한 교사 신념 연구들은 영문법과 읽기지도에 대한 신념을 고찰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영어 발음지도와 관련하여 교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교사의 신념 연구는 현직 영어교사보다 예비 영어교사의 신념을 고찰하는데 더 관심을 보여 왔으며, 현직 영어교사의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는 서은실(20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Baker와 Murphy(2011)가 지적 하듯이, ESL/EFL 상황에서 영어 발음과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해 현직 중등 영어교사들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교실 수업 활동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영어교사의 발음 교육에 대해 갖는 신념으로 영어 학습자의 발음 학습전략을 어떻게 잘 사용하도록 영어교사가 도와 줄 것인가와 연관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영어교사가 영어 발음과 발음 지도 활동 및 발음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교실에서 학습자의 발음 학습전략을 어떻게 고양시키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발음 학습전략은 Oxford(1990)가 분류한 언어 학습전략 목록을 바탕으로, 그 학습전략을 발음 지도와 연계시켜, 영어 학습자 발음 전략을 연구한 김종훈(2017)을 참고하여 필자가 설문 항목으로 추가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Oxford(1990)가 분류한 제 2언어 학습자의 주요 학습전략들인 기억 전략, 보충 전략, 인지 전략, 상위 인지 전략, 사회적 전략, 정의적 전략들을 발음 교육에 연관시켜 영어학습자가 사용하는 발음 학습전략으로 나타내고, 이에 대해 영어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습자들이 발음 학습전략을 즐겨 사용하도록 도와주는지에 대해 갖는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참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제주도 시내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영어교사 총103명이다. 설문조사는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교사를 제외하고 103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구성비와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구분	빈도(N=103)	백분율(%)
성별	남성	38	36.9
	여성	65	63.1
연령	20대	25	24.3
	30대	34	33.0
	40대	30	29.1
	50대	14	13.6
경력	5년 미만	30	29.1
	5년 이상	73	70.9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중 남자는 38명(36.9%)이고, 여자는 65명 (63.1%)이다. 연령대별로 그들을 구분하면 20-30대는 59명, 40-50대는 44명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 보면 5년 미만의 교사가 30명(29.1%), 5년 이상의 교사는 73명(70.9%)이다.

3.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이고, 둘째는 서면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이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2017년 2월 초에 설계되었고, 2017년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수집하였다. 먼저 수집한 20개의 설문지를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0.0)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더니 크롬바 알파 계수가 0.834의 결과가 나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계속해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제주도 시내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60명에게는 이메일로 배포하였으며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 설문조사를 한 후 수집하였다. 최종 설문 참여자 103명 중에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57명으로부터 인터뷰 자료가 수집되었다.

3.2.1 설문지의 구성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부록1>에서 보듯이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묻는 질문과 발음 교육에 대한 신념을 묻는 개방형 질문 및 영어 교사의 발음 지도와 관련된 견해를 쓰도록 한 개방형 질문이 그것이다. 설문지 중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신념을 묻는 항목은 영어 발음 및 발음 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는 7개 문항(문항 1-7), 실제 교실에서 행하는 발음 교수 학습 활동 및 평가에 대한 13문항(문항 8-20), 교사의 발음 학습 전략 훈련과 관련된 20문항(문항21-40)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에 참여한 영어교사들에게 40개의 문항을 읽고 각 문항별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5단계의 척도에 X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을 알기 쉽게 나타내면 <표 3>와 같다.

<표 3> 설문지의 구성

부분	문항 내용	문항 유형	문항 수
I	참여자 정보	5단계척도	3
	발음 및 지도에 대한 일반 문항	5단계척도	7
II	발음 교수 · 활동 및 평가에 대한 문항	5단계척도	13
	발음 학습 전략 지도 문항	5단계척도	20
III	효과적인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문항	개방형	3
총 설문 문항 수			46

설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영어발음 및 발음지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견해를 묻기 위해 각 문항에 5단계 척도로 ‘전혀 아니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영어 발음의 중요성에 대한 1문항, 학생들의 영어 발음 구사 능력에 대한 2문항, 영어 수업 시간에 발음 지도에 관한 2문항, 그리고 발음 자료에 대한 2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영어 발음 지도 시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의 8번부터 20번까지 총 13문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서는 영어교사가 수업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음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10개의 문항과 발음 평가와 관련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발음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20개의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Oxford(1990)가 개발한 언어 학습전략 목록을 토대로 발음 학습전략을 설계하였다. 학습전략의 주된 목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있고, 구두 의사소통과 발음이라는 것은 분리시켜 생각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한 Oxford(1990)의 언어 학습전략 목록을 발음 학습 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Oxford(1990)가 개발한 언어 학습전략 목록은 이전의 직접전략과 간접전략으로 이분하였던 것을 6가지의 전략으로 구체화 시킨 것으로 이후 많은 연구에서 이 목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착안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김종훈(2017)이 예비 영어교사 발음 학습 전략을 참고하여 발음지도 시 활용하는 학습전략에 대

해 묻는 총 20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의 또 다른 방법으로 개방형 인터뷰 질문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학교 수업에서 차지하는 발음지도의 비중은 얼마나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십시오.”, “앞으로 교사로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발음교육의 방향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수업시간에 발음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지도방법이 있다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서술형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교사의 신념에 비추어 자유로이 기술하도록 하였다. (부록참고)

3.2.2 자료 분석 방법

총 103명의 중등 영어 교사들로부터 받은 설문지를 SPSS(20.0)을 사용하여 양적인 분석을 하였다. 설문지의 객관식 문항에 대해서는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진행하고,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남녀 교사 간에, 그리고 숙련교사와 비숙련 교사간에 어떤 신념의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이 논문에서 채택한 유의도 수준(significance level)은 $p < 0.05$ 이다. 독립표본 검정 결과 p값(p-value)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statistically significant)것으로 처리하였다.

전체 57명이 참여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작성해 준 진술을 토대로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이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 발음을 얼마나 비중있게 가르치고 있으며, 어떤 지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효과적인 영어 발음 교육의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를 통해 기술해 보았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설문자료를 통해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해 영어교사들이 갖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로 제시한 영어 발음 지도에 관한 영어 교사들의 일반적인 신념과 성별에 따른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신념의 차이 및 경력에 따른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신념의 차이에 대해 답하게 될 것이다.

4.1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일반 신념

4.1.1 영어 발음 및 발음 지도에 대한 견해

먼저 영어교사들이 영어 발음의 중요성과 학생들의 영어 발음 능숙도 및 영어 발음 지도 자료에 대해 어떤 신념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평균 값이 높은 순서로 제시하면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발음과 지도에 대한 견해

문 항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동의 %	중립 %	비동 의%
1.	발음은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기능임	3.61	0.992	59.2	23.3	17.5
2.	영어수업시간에 발음교육을 실시해야 함	3.60	0.953	58.3	26.2	15.5
4.	이해가능한 수준의 발음이 되어야 함	3.57	1.209	65.1	15.5	19.4
5.	교실 밖 발음 관련 실물 자료가 적절함	3.29	1.226	52.5	21.2	26.3
7.	수업 시간에 발음을 비중 있게 지도해야 함	3.29	1.288	50.5	20.3	29.2
6.	교과서의 발음 관련 자료가 적절함	2.69	1.306	29.1	23.3	47.6
3.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되어야 함	2.67	1.166	21.4	25.2	53.4

위 표에서 보듯이 영어교사들은 영어 발음이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하는 문항의 평균값(3.6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 동의하는 영어교사의 비율은 59.2%,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17.5%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영어 발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영어 수업시간에 발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항목의 평균은 3.60로 그 점에 찬성하는 비율이 58.3%, 반대하는 비율이 15.5%을 보였다. 이런 반응은 영어 수업 시간에 발음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7번 문항의 설문결과(평균=3.57)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해 참여자의 50.5%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29.2%가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영어 발음 능숙도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바람직한지를 물어본 두 문항의 질문 분석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학생들의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 되어야 한데 동의한 교사들의 비율은 21.4%, 반대한 비율인 53.4% 였고, 이해 가능한 발음이 되어야 한데 찬성한 교사들은 65.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19.4%였다. 이는 최근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영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의 목표를 ‘완벽하고 원어민 같은’ 수준의 발음과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발음 습득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흐름과 부합하고 있다. 예컨대 Macdonald(2002)는 발음 지도와 학습의 목표는 모국어와 비슷한 발음(native-like pronunciation)을 가르치는데서부터 이해 가능한 발음(intelligibility)을 가르치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 발음을 습득하는데 목표를 둘 경우 그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높아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해 가능한(comfortably intelligible) 발음을 습득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이다(Kenworthy, 1987).

위 <표 4>에서 주목할 것은 연구 참여 대상의 약 절반 정도가 발음 지도 관련 자료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그들은 교실 밖에서 이용하는 발음 지도 관련 실물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평균=3.29), 교과서 안에 수록된 발음 지도 자료들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결과를(평균=2.69) 보였다.

4.1.2 발음 지도 활동 및 평가에 대한 견해

다음으로 영어교사들이 학생들의 발음지도를 위하여 어떤 교수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5>과 같다.

<표 5>교수 학습 활동 및 평가에 대한 견해

문항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동의 %	중립 %	비동 의 %
17.	발음 오류에 대해 피드백 제공	3.73	1.068	59.2	24.3	16.5
8.	원어민의 음성 CD 사용	3.41	1.339	55.3	16.5	28.2
9.	교사 자신의 음성 반복	3.18	1.289	45.7	22.3	32.0
16.	문장 강세와 억양, 리듬에 지도 초점	3.15	1.224	42.7	28.2	29.1
10.	영어와 한국어의 발음 비교 설명	3.14	1.306	50.5	16.5	33.0
11.	사전 속 발음 기호 숙지 시킴	3.09	1.189	39.8	26.2	34.0
20.	강세와 억양의 유창성으로 발음평가	3.06	1.274	38.8	26.2	35.0
14.	게임, 노래, 역할극 등,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제 사용	2.98	1.321	37.9	20.3	41.8
15.	연음 등, 음운현상 연습 시킴	2.98	1.313	38.9	22.3	38.8
13.	영어의 최소 대립어 연습, 구분 시킴	2.74	1.298	31.1	22.3	46.6
18.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성으로 발음 평가	2.60	1.051	22.3	27.2	50.5
12.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성 지도	2.44	1.218	19.5	23.2	57.3
19.	한국식 말투의 사용 여부로 발음 평가	2.11	0.907	2.9	29.1	68.0

위 <표 4>을 보듯이, 영어교사들은 발음지도 시 학생들의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해준다는 17번 문항에서 평균값 3.73을 보임으로써 강한 신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활동 영역 또한 원어민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발음지도에 사용하고 있다는 8번 문항의 평균값은 3.41로 비교적 높았다. 이에 동의하는 교사의 비율은 55.3%로 동의하지 않은 비율 28.2%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평균값 3.18을 기록한 9번 문항에서는 교사 자신의 음성으로 시범을 보인 후 따라 하도록 한다는데 찬성한 비율이 45.7%를 보였으며, 32.0%

는 그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밖에 문장의 강세와 억양 및 리듬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고(평균=3.15), 영어와 한국어의 발음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방법(평균=3.14)과 영어 사전 속의 발음 기호를 숙지시키는 활동(평균=3.09)에 대한 신념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발음 지도 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게임, 노래, 역할극 등의 과제를 사용하는 14번 문항과 연음 등 음운현상을 연습시키는 활동을 하는 15번 문항에 대한 신념은 2.98을 기록했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발음 지도 기법인 단어와 문장의 최소대립을 통한 발음지도에 대한 신념은 그보다 더 낮았다. 특히, 영어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음에 지도의 초점을 두는 기법에 대한 신념은 매우 낮았다(평균=2.44). 여기에 동의한 교사 비율은 79.5%였으며, 반대한 교사 비율은 57.3%였다.

이 결과는 앞에서 문장 강세와 억양 지도 활동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 높은 것과 비교할 때 연구 참여자들이 영어 발음 지도 시 분절음 보다 초분절음 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분절음 지도 활동에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인 교사들의 신념은 학생들의 발음을 평가하는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발음을 평가할 때 영어 단어의 자음과 모음을 정확히 발성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기(평균=2.60) 보다는 강세와 억양의 유창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 하고 있다는 사실(평균=3.06)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영어교사들 중 대다수(68.0%)가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음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좋은 영어 발음을 갖고 있는지 평가 할 때 외래식 말투(foreign accent)가 없는 발음을 가장 높게 평가한 Harris(1969)의 입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4.1.3 발음 학습전략별 지도에 대한 견해

이번에는 교사들이 영어 발음 지도 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발음 학습전략을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를 보기로 하자.

먼저, 발음 학습전략으로서 기억 전략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문항의 응답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기억 전략 지도 양상

문항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동의 %	중립 %	비동의 %	전체 평균
	발음 기억을 위해 연관된						
21	그림이나 사진 이용해 연상하도록 도와줌	3.23	1.30	49.5	17.4	33.1	
23	발음 기억을 위해 노래나 리듬 통해 도와줌	3.09	1.29	39.8	25.2	35.0	3.06
22	발음 기억을 위해 음성학적 특징 및 규칙 통해 도와줌	2.85	1.27	33.1	25.1	41.8	

위 <표 6>에서 보듯이 발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단어와 연관된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연상하도록 도와 준다는 항목에서의 평균값은 3.23을 기록했다. 약 절반의 참여 교사들(49.5%)이 이 전략을 사용하도록 도와 준다고 하는데 찬성하였으며, 33.1%의 교사들은 그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발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노래나 리듬을 통해 도와 준다는 데 대한 신념은 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며 (평균=3.09), 약 40%의 교사들이 그 전략 사용을 도와주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음 기억을 위해 음성학적 특징이나 규칙을 이용하여 도와 준다는 항목에 대한 신념(평균=2.85)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참여하는 교사들(33.1%)보다 반대하는 교사들 (41.8%)이 더 많았다.

이번에는 학습자들의 발음 학습전략 중에서 인지 전략을 교사들이 어떻게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인지 전략 지도 양상

문 항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동의 %	중립 %	비동 의%	전체 평균
24	발음을 반복해서 따라하도록 도와줌	3.62	1.04	59.2	21.4	19.4	
27	영어 CD 사용하여 따라하도록 도와줌	3.33	1.33	53.4	16.5	30.1	
28	음성학적으로 어려운 음을 발음하도록 도와줌	3.17	1.25	49.5	19.4	31.1	3.25
25	발음을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도와줌	3.15	1.24	41.8	30.0	28.2	
26	발음 규칙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줌	3.00	1.23	35.9	27.2	36.9	

위 <표 7>를 보면 인지 전략을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5개의 모든 항목에서 평균값이 3.00이상을 보임으로써 신념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9.2%의 영어교사들은 발음 지도 시 발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데 찬성하였으며, 19.4%는 반대하였다. 영어 CD를 사용하여 발음을 따라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데 동의한 교사의 비율은 53.4% 반대한 교사 비율은 30.1%였다. 약 절반 정도의 교사들은 발음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음성학적으로 특히 어려워하는 음을 발음하도록 도와준다는데 동의를 하였으며, 31.1%의 교사들은 그와 다른 반응을 타나냈다. 학생들에게 배운 발음에 대해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하는 전략을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교사 비율은 41.8%였고, 그렇지 않은 교사 비율은 28.2% 였다. 마지막으로 영어 발음 규칙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교사의 찬성(35.9%)과 반대(36.9%)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영어교사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드러나 있다.

<표 8>보충 전략 지도 양상

문 항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동의 %	중립 %	비동 의%	전체 평균
30	비슷한 발음할 수 있도록 도와줌	3.19	1.21	45.6	26.2	28.2	3.14
31	발음을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줌	3.17	1.22	43.7	27.1	29.2	
29	모르는 단어 발음을 한글로 적을 수 있도록 도와줌	3.06	1.33	43.7	16.5	39.8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보충 전략 활용을 도와주는 3개의 문항들의 평균은 모두 3.06이상을 기록했다. 영어교사들이 그것들에 대해 갖는 신념이 강하다는 뜻이다. 영어 교사들의 45.6%는 학생들이 영어 단어의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단어와 최대한 비슷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28.2%는 그와 반대되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학생들이 영어 단어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음을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찬반 비율은 43.7%와 29.2%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43.7%는 동의, 39.8%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어서 영어교사들이 발음 지도를 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상위 인지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알기 쉽게 제시하면 <표 9>과 같다.

<표 9>상위 인지 전략 지도 양상

문 항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동의 %	중립 %	비동 의%	전체 평균
33	다른 학생의 발음 주의기울여 듣도록 도와줌	3.17	1.24	46.6	23.3	30.1	2.72
32	발음 연습 기회제공이 되도록 도와줌	3.03	1.24	35.0	32.0	33.0	
35	스스로 발음 공부 목표 세우도록 도와줌	2.38	0.99	16.5	25.2	58.3	
34	스스로 발음 공부 계획 세우도록 도와줌	2.31	1.01	16.5	21.4	62.1	

위 결과를 보면 영어교사들이 학생들의 발음을 지도할 때 다른 학생들의 발음에 주의를 기울여 듣도록 도와주거나 (평균=3.17) 발음 연습에 대한 기회를 많이 갖도록 도와주는 (평균=3.00) 항목에 대한 신념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항목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을 보면, 33번 항목에서 찬성이 46.6%, 반대 30.1%, 32번 항목에서 찬성 35.0%, 반대 33.0%을 보였다. 그러나 상위 인지 전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발음 공부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전략을 활용하도록 도와 주는 문항에 대한 신념은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값 2.38을 보이고 있는 35번 문항에서 58.3%의 영어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발음 공부를 위한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 주고 있다는데 찬성하지 않았으며, 16.5%만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보다 더 낮은 평균 값 2.31을 나타낸 34번 문항에서는 62.1%의 교사들이 발음 공부를 위한 계획을 학생들이 스스로 세우도록 도와주고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16.5%만이 찬성의 응답을 하였다.

다른 발음 학습전략들과 달리 상위 인지 전략 사용 빈도가 낮다는 결과는 터기의 예비 영어 교사들의 발음 학습 전략을 연구한 Akyol (2013)과 한국의 예비 영어교사들의 발음 학습 전략을 탐구한 김종훈(2017)에서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Akyol(2013)에서 예비 영어교사들의 상위 인지 전략 사용 빈도는 2.88이었으며, 김종훈(2017)에서도 예비 영어교사들이 발음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전략 사용 빈도는 평균값이 2.45, 발음 학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전략 사용 빈도는 2.33의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상위 인지 전략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영어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의적 발음 전략을 고양시킬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교사들의 정의적 전략 지도 양상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정의적 전략 지도 양상

문항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동의 %	중립 %	비동의 %	전체 평균
36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하여 도와줌	4.12	0.82	77.7	19.4	2.9	3.94
	긴장이나 두려움 해소하도록 도와줌						
37	긴장이나 두려움 해소하도록 도와줌	3.76	1.02	64.1	20.4	15.5	

앞에서 본 다른 발음 학습전략과 달리 정의적 전략에 대한 교사들의 신념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12의 높은 평균값을 보인 36번 문항에서 교사들 대부분(77.8%)은 학생들이 어려운 단어를 발음하려고 노력할 때 칭찬과 격려를 하며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은 교사의 비율은 2.9%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3.76의 평균값을 갖는 37번 문항에서는 64.1% 교사들은 학생들이 발음을 잘못했을 때 긴장이나 두려움을 풀어주도록 도와 준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15.5%가 반대하였다. 이 결과는 영어교사들이 영어 발음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발음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교사들이 학생들의 사회적 발음 전략을 높이도록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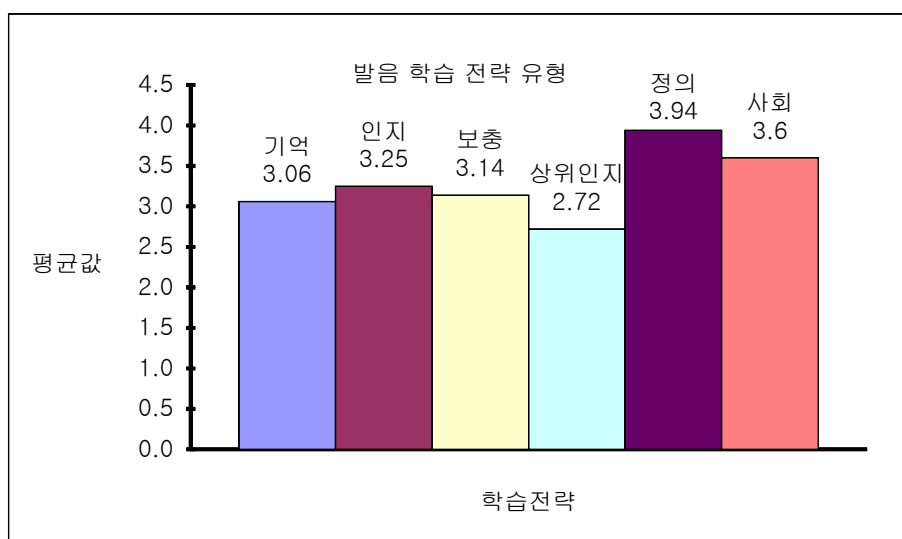
<표 11> 사회적 전략 지도 양상

문항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동의 %	중립 %	비동의 %	전체 평균
38	오류를 보일 때 발음 고치는 것을 도와줌	3.95	0.73	70.9	29.1	0.0	3.60
	발음 관련 질문 시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줌						
40	짜을 지어 발음 연습하도록 도와줌	2.98	1.31	36.9	19.4	43.7	

학생들이 발음상 오류를 범했을 때, 교사가 발음을 고치는 것을 도와주는 지 묻는 38번의 평균값은 3.95로써 이에 대해 70.0%의 교사가 동의한다는 반

응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혀 없었다. 또한 학생들이 발음에 대해 질문하면 함께 해결한다는 39번 문항에서도 68.0%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한 사람도 없었다. 반면에 학생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발음 연습을 하도록 도와 준다는 문항의 평균값은 2.98이었으며, 36.9%의 교사들은 찬성을, 43.7%의 교사들은 반대편에서 있었다.

지금까지 영어 발음을 배우는 학습자들의 발음 학습전략을 사용하도록 어떻게 도와 주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교사들이 지도하는 발음 학습전략별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영어 발음 학습 전략 지도 활용 양상

위의 <그림1>에서 보듯이, 발음 학습전략의 6가지 유형에서 실제로 영어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전략들의 우선 순위는 정의적 발음 전략 사용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따라 사회적 전략과 인지 전략 그리고 보충 전략과 기억 전략을 활용하도록 도와 주는 순서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상위인지 전략 사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교사의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교사의 성별에 따른 발음 교육에 대한 신념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인 교사의 성별에 따라서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신념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설문에 참여한 남자 교사 38명과 여자 교사 65명의 응답을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40개의 전체 문항 중 31개의 문항에서는 유의도 $p < 0.05$ 에 해당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바꿔 말해, 다음 9개 문항에서만 유의도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12> 남녀 교사 간 신념 차이 1

문항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t값	p값
		남	여	남	여		
3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되어야 함	3.79	3.49	0.93	0.95	2.427	0.017
6	교과서 내의 관련 발음자료가 적절함	2.46	3.87	1.01	1.18	2.366	0.022
14	게임, 노래, 역할극 등,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제 활용함	2.82	3.25	1.22	1.14	2.327	0.022
19	한국식 말투의 사용여부로 발음 평가함	2.57	3.37	1.32	1.40	-2.073	0.041
21	연관된 그림이나 사진 사용해 발음을 연상하도록 도와줌	3.66	2.98	1.14	1.32	2.607	0.011
23	노래나 리듬 이용해 발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줌	3.74	2.71	1.10	1.25	4.180	0.000
24	발음을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도와줌	4.03	3.38	0.91	1.04	3.262	0.002
25	발음을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도와줌	3.61	2.88	0.94	1.31	3.250	0.002
40	짜을 지어 발음 연습하도록 도와줌	3.74	2.54	1.17	1.18	4.958	0.000

위 <표 12>를 보면 학생들의 발음 구사력이 원어민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3번 문항에서 남녀 교사들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p=0.017$) 보이고 있다. 또한 교과서 내에 발음 관련 자료가 적절하다는 6번 문항에서도 남녀 교

사들간 유의적인 차이($p=0.022$)를 나타내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발음 지도 과제를 활용하는 14번 문항에서도 $p=0.022$ 를 보임으로써 유의적인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밖에 학생들의 발음을 평가할 때 한국식 말투 존재 여부로 평가한다는 19번 문항($p=0.041$)과 발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21번 문항($p=0.001$), 발음을 여러번 반복해서 따라 하도록 도와주는 24번 문항($p=0.002$)과 최근에 배운 발음을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도와주는 25번 문항($p=0.022$)에서도 남녀 교사들간 유의적인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남녀 교사들간에는 단어 발음 기억을 위해 노래나 리듬을 통해 도와주는 23번 문항과 학생끼리 짝을 지어 발음 연습 하도록 도와주는 40번 문항에서 $p=0.000$ 을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 9개 문항을 자세히 보면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6개의 문항(3,21,23,24,25,40)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발음 학습 전략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에 대한 신념에서는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모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문항들($p>0.05$)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3> 남녀 교사 간 신념 차이 2

문 항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t값	p값
		남	여	남	여		
1	의사소통에서 발음은 중요함	3.76	3.52	1.05	0.95	1.18	0.238
2	영어수업시간에 발음교육 실시해야함	3.52	3.79	0.94	0.93	1.53	0.127
4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발음	3.49	3.03	0.95	1.32	1.19	0.057
5	적절한 교실 밖 실물 자료	3.03	2.46	1.32	1.01	1.15	0.250
7	수업시간에 비중있게 발음 지도	3.87	3.40	1.18	1.19	-0.64	0.522
8	원어민의 음성 녹음테이프 활용	3.68	3.25	1.11	1.43	1.72	0.088
9	음성으로 시범을 보임	3.25	3.13	1.43	1.41	-0.31	0.752
10	영어와 한국어 발음을 비교,설명	3.13	3.22	1.41	1.21	1.70	0.090

11	사전 속의 발음기호 숙지	3.22	3.42	1.21	1.32	-1.79	0.076
12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성	3.42	2.97	1.32	1.27	1.24	0.217
13	영어의 최소 대립어를 연습,구분	2.97	2.82	1.27	1.22	1.74	0.085
15	연음 등, 음운현상을 연습	3.25	2.63	1.14	1.30	1.31	0.192
16	문장의 강세와 억양, 리듬	2.63	2.32	1.30	1.16	1.76	0.081
17	학생들의 발음 오류에 대해 피드백 제공함	2.32	3.03	1.16	1.21	1.68	0.095
18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성을 평가	3.03	2.57	1.21	1.32	-0.75	0.454
20	강세와 억양의 유창성으로 발음 평가	3.37	2.75	1.40	1.22	1.08	0.279
22	발음 기억을 위해 음성학적 특징 및 규칙 이용하여 도와줌	3.00	2.77	1.090	1.367	0.94	0.349
26	발음 규칙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줌	3.16	2.91	1.175	1.271	0.99	0.324
27	영어 CD 사용하여 따라하도록 도와줌	3.47	3.25	1.390	1.311	0.83	0.408
28	음성학적으로 어려운 음을 발음하도록 도와줌	3.13	3.20	1.298	1.240	-0.26	0.791
29	모르는 단어 발음을 한글로 적도록 도와줌	3.03	3.08	1.385	1.315	-0.18	0.854
30	비슷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3.13	3.23	1.256	1.196	-0.39	0.691
31	발음을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줌	3.21	3.15	1.143	1.278	0.22	0.822
32	발음 기회를 많이 찾도록 도와줌	3.13	2.97	1.256	1.237	0.63	0.524
33	다른 학생들의 발음에 주의 기울여 듣도록 도와줌	3.21	3.15	1.166	1.290	0.22	0.824
34	스스로 발음공부 계획 세우도록 도와줌	2.16	2.40	0.886	1.072	-1.23	0.220
35	스스로 발음공부 목표 세우도록 도와줌	2.21	2.48	0.843	1.062	-1.40	0.164
36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하며 도와줌	4.21	4.06	0.843	0.808	0.88	0.376
37	긴장이나 두려움 해소하도록 도와줌	3.87	3.69	1.018	1.030	0.84	0.402
38	오류를 보일 때 발음을 고치는 것을 도와줌	3.89	3.98	0.727	0.739	-0.59	0.551
39	발음 관련 질문에 대해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줌	3.84	3.92	0.679	0.756	-0.54	0.588

위 31개 문항들은 유의도 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남녀 교사들간 31개 문항의 평균을 보면 20개 문항에서 남자 교사의 평균이 여자 교사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문항들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문항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문항(60%)에서도 남자 교사들의 신념이 여자 교사들의 신념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이란의 외국어 고등학교 남교사(35명)와 여교사(85명)를 대상으로 발음 지도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Shahriari와 Dastgahiam(2014)의 연구에서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더 많은 구두 기법과 지도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즉, 그들은 구두로 발음 반복, 개별 발음에 집중 지도, L1과 L2 발음 비교, 발음의 정확성, 동료간 발음 연습, 구두 평가 등의 방법에서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바 있다.

4.3 교사의 경력에 따른 발음 교육에 대한 신념

다음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문제인 교사의 경력에 따른 영어 발음에 대한 신념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직 경력을 구분한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 대상자를 5년 미만의 경우 비숙련 교사(inexperienced teachers)로, 5년 이상은 숙련 교사(experienced teachers)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Katz(1972)는 교사들의 발달 단계를 교직 경력에 따라 0-1년(생존단계), 2-3년(보강단계), 3-4년(보강단계), 5년 이후(성숙단계)로 구분한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사들의 발달단계를 교직경력을 중심으로 구분한 선행 연구(이윤식, 1999)를 보면 대개 5년을 기점으로 하여 구분된다. 대체로 교직경력이 5년 이상이 되면 교직에 대해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어 원숙한 교사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4년 정도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 교사의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를 비숙련 교사(inexperienced teachers), 5년 이상을 숙련 교사(experienced teachers)로 분류했다. 영어 교사들의 교직 경력에 의해 구분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Richards, Li, & Tang, 1998)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를 숙련 교사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에서 숙련 교사는 73명, 비숙련 교사는 30명이었다. 그들의 경력에 따라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신념을 분석 한 결과는 아래의 <표 14>에 나타나 있다.

<표 14> 경력별 신념 차이 1

문 항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t값	p값
		숙련	비숙련	숙련	비숙련		
2	영어 수업 시간에 발음교육을 실시해야함	3.22	3.82	0.787	0.975	-3.21	0.002
3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되어야 함	2.35	2.85	0.919	1.256	-2.30	0.024
14	게임, 노래, 역할극 등,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제 활용	2.46	3.27	1.216	1.296	-3.12	0.002
16	문장의 강세와 억양, 리듬에 지도 초점을 둬	2.65	3.42	1.136	1.190	-3.22	0.002
17	발음 오류에 대해 피드백 제공함	3.27	3.98	1.146	0.936	-3.23	0.002
21	발음 기억을 위해 연관된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해 연상하도록 도와줌	2.68	3.55	1.292	1.205	-3.42	0.001
23	발음 기억을 위해 노래나 리듬을 이용해 도와줌	2.24	3.56	1.256	1.069	-5.63	0.000
24	발음을 반복해서 따라하도록 도와줌	3.14	3.89	1.032	0.947	-3.77	0.000
25	발음을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도와줌	2.76	3.36	1.517	1.002	-2.18	0.034
40	짝을 지어 발음 연습하도록 도와줌	2.57	3.21	1.303	1.271	-2.44	0.016

위 표를 보면 숙련 교사들과 비숙련 교사들간에 영어 수업 시간에 발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2번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p=0.002$)를 보였다. 또 학생들의 발음 능숙도가 원어민과 비슷해야 된다는 3번 문항에서도 유의적인 차이($p=0.024$)를 기록했다. 이 밖에 발음 지도 활동들에 대한 항목인 게임, 노래, 역할극 등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과제 수행에 대한 14번 문항($p=0.002$)과 문장의 강세와 억양 및 리듬에 지도의 초점을 두는 16번 문항($p=0.002$)과 발음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17번 문항($p=0.002$)에서 숙련 교사들과 비숙련 교사들간에 유의적인 신념의 차이가 나타났다.

게다가, 발음 학습 전략을 활용하도록 도와 주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 예컨대 발음 기억을 위해 연관된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연상하도록 도와주는 21번 문항($p=0.001$)과 노래나 리듬을 이용하여 도와 주는 23번 문항($p=0.000$)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인지 전략으로써 발음을 반복해서 따라하도록 도와주는 24번 문항($p=0.000$)과 발음을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도와주는 25번 문항($p=0.034$)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전략으로서 짝을 지어 발음을 연습하도록 도와 주는 40번 문항($p=0.016$)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5년 미만의 비숙련 교사들이 5년 이상의 숙련 교사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10개 문항 모두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 문항에 대한 비숙련 교사들의 신념이 숙련 교사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더 강하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비숙련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발음 학습에 동기를 유발하는데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비숙련 교사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교사들이어서 대학에서 배운 영어 발음 관련 정보와 발음 지도 관련 지식을 영어를 가르칠 때 적극 반영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음 절에 설명할 개방형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숙련과 비숙련 교사들의 발음에 대한 신념의 차이가 나는 10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0개의 문항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표 15>가 보여주듯이 30개의 문항에서 유의도 수

준 $p < 0.05$ 에 해당하지 않았다.

<표15>경력별 신념 차이 2

문 항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t값	p값
		숙련	비숙 련	숙련	비숙 련		
1	발음은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 한 기능임	3.54	3.65	0.836	1.074	-0.58	0.562
4	이해가능한 발음이 되어야 함	3.38	3.68	1.139	1.242	-1.22	0.224
5	교실 밖 발음 관련 자료가 적 절함	3.32	3.27	1.107	1.296	0.20	0.839
6	교과서 내의 발음자료가 적절 함	2.41	2.85	1.257	1.315	-1.66	0.099
7	수업시간에 발음지도 비중이 높음	3.22	3.33	1.475	1.181	-0.41	0.680
8	원어민의 음성 녹음테이프 활 용	3.19	3.53	1.506	1.231	-1.17	0.244
9	교사 자신의 음성으로 시범을 보임	3.30	3.12	1.288	1.295	0.663	0.509
10	영어와 한국어 발음을 비교, 설명	3.08	3.17	1.256	1.343	-0.318	0.751
11	사전 속의 발음기호 숙지시킴	3.19	3.03	1.221	1.176	0.649	0.518
12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성 지도	2.32	2.50	1.203	1.231	-0.700	0.485
13	영어의 최소 대립어를 연습, 구분	2.65	2.79	1.358	1.271	-0.520	0.604
15	연음 등, 음운현상을 연습 시 킴	2.78	3.09	1.618	1.106	-1.028	0.309
18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성 을 평가	2.84	2.47	0.986	1.070	1.722	0.088
19	한국식 말투의 유무로 발음 평가	2.32	1.98	0.884	0.903	1.845	0.068
20	강세와 억양의 유창성으로 발 음평가	3.05	3.06	1.153	1.346	-0.025	0.98
22	발음 기억을 위해 음성학적	2.70	2.94	1.561	1.080	-0.819	0.416

	특징 및 규칙 이용하여 도와 줌						
26	발음 규칙 설명하고 이해하도 록 도와줌	2.92	3.05	1.299	1.208	-0.496	0.621
27	영어 CD 사용하여 따라하도 록 도와줌	3.43	3.27	1.237	1.398	0.579	0.564
28	음성학적으로 어려운 음을 발음 하도록 도와줌	3.27	3.12	1.122	1.330	0.576	0.566
29	모르는 단어 발음을 한글로 적도록 도와줌	3.14	3.02	1.228	1.398	0.436	0.664
30	비슷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3.30	3.14	1.077	1.288	0.644	0.521
31	발음을 추측할 수 있도록 도 와줌	3.24	3.14	1.321	1.175	0.423	0.673
32	발음 기회를 많이 찾도록 도 와줌	3.00	3.05	1.374	1.190	-0.178	0.859
33	다른 학생들의 발음에 주의 기울여 듣도록 도와줌	3.11	3.21	1.329	1.196	-0.407	0.685
34	스스로 발음공부 계획 세우도 록 도와줌	2.16	2.39	1.041	0.990	-1.119	0.266
35	스스로 발음공부 목표 세우도 록 도와줌	2.24	2.45	1.065	0.948	-1.038	0.302
36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하며 도와줌	4.24	4.05	0.760	0.849	1.177	0.242
37	긴장이나 두려움 해소하도록 도와줌	3.76	3.76	1.038	1.024	-0.004	0.997
38	오류를 보일 때 발음을 고치 는 것을 도와줌	4.05	3.89	0.848	0.659	0.993	0.325
39	발음 관련 질문에 대해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줌	4.05	3.80	0.815	0.661	1.698	0.093

숙련 교사들과 비숙련 교사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위 30개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16개 문항에서는 비숙련 교사들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13개 문항에서는 숙련 교사들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나머지 1개 문
항에서는 두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할 때 총 40개의 문항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10개의 문항들과 차이가 없는 16개의 문항들을 합쳐 총 26개의 문항에서 비숙
련교사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다. 결국, 60%의 문항에서 비숙련 교사들의
신념이 비숙련 교사들의 신념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4.4 개방형 질문 분석 결과 및 논의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57명의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먼저 학교 수업에서 차지하는 영어 발음 지도의 비중은 얼마나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부터 제시하기로 한다.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57명의 영어교사들 중 51명의 영어교사들은 대체로 학교 수업에서의 영어 발음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중이 적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발음 지도에 대한 비중이 적은 이유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발음 지도의 비중이 적다고 답한 51명의 교사들 중 발음의 비중이 적은 이유로 입시제도와 관련된 교육활동과 진도로 인한 시간 부족을 주장한 교사들은 43명이었다. 가령 A교사는 “고등학교 영어수업에서 교육과정 평가 방식이 쓰기, 말하기를 평가하기 보다는 읽기와 듣기 위주로 평가하는 체제에 가깝기 때문에 발음 교육은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B교사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독해와 문법 수업에 편중되다보니 말하기 또는 발음 지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언급하였으며, C교사 또한 “시험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음을 따로 다룰 시간이 모자라다”고 언급하였다. 이 결과는 강애진(2004)에서 발음 교육이 불필요 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발음 지도의 비중이 낮은 것이 아니라 입시 위주로 영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음 지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것과 비슷하다.

나머지 4명의 교사들은 발음 지도의 비중이 적은 또 다른 이유로 의사소통 중심의 발음을 중요시한다는 데 두고 있다. 이에 D교사는 “원어민과 같은 발음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발음 지도를 따로 진행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발화 위주로 지도한다”고 언급했다. 비슷한 의견으로 E교사는 “발음이 좋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음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같은 교사들의 태도는 앞에서 양적인 분석을 하며 나타난 결과, 즉 학생들의 발음 능숙도는 원어민과 유사하게 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발음이면 된다는 데 더 많

은 동의를 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발음 지도의 비중이 낮은 이유로 발음 지도를 따로 떼어서 지도하기 보다는 영어의 다른 기능과 함께 통합시켜서 가르친다는 의견을 가진 3명의 교사들도 있었다. 예컨대 F교사는 “말하기 활동에서 포함되어 같이 따라 읽는 방법으로 지도하지만, 따로 발음만을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영어교육에서 원어민과 같은 발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음운, 음성규칙을 따로 가르치며 지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영어의 다른 기능과 연결시켜 발음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G교사의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G교사는 “발음 지도는 따로 지도하는데 시간을 쓰기 보다는, 어휘 학습 시 또는 말하기, 듣기 연습에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발음 지도가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은 따로 기본적인 부분부터 가르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도 하고 어휘, 말하기, 듣기처럼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듣고 말하면서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와는 달리 영어 수업에서 발음의 비중을 다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사들도 발견되었다. 그들은 대체로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로는 단어를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H교사는 “발음이 교과서를 읽는 기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발음 지도를 하는 편”이라고 언급하였고, I교사 역시 “본문 읽기를 잘 할 수 있는 수준의 발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는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J교사는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원어민이 들려주는 듣거나 말하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음지도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첫 번째 개방형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학교에서 발음의 비중은 크게 차지하지 않으나, 발음 지도를 할 때 독립적으로 발음만을 지도하기 보다는 쓰기, 어휘, 듣기와 같이 다른 영어의 기능과 연결시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발음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이와 더불어 발음 지도의 목표는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구사하는데 두기

보다는 이해가능한 수준의 발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 영어 교사들의 발음 지도에 대한 신념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개방형 질문은 발음 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지도방법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었다. 57명의 교사들 중 24명의 교사들은 영어 교과서 CD를 반복해서 들려주며 문장 단위로 따라 읽게 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본 설문문의 영어발음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한 신념 결과에서 8번 문항인 원어민의 음성 CD를 사용한다는 동의값(55.3%)을 얻은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7명의 교사들은 자신의 음성을 반복해서 따라하게 한다거나 정확한 CD속의 발음을 듣고 반복해서 따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 역시 설문문의 양적 분석 결과에서 자신의 음성으로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에게 따라하도록 한다는 교사의 생각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26명의 교사들은 이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면, 먼저 음성·음운론적 규칙을 활용한다는 의견을 보인 교사들이다. 예로써, K교사는 “반복해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설명해 준다”고 하였으며, L교사 역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려주면서 우리 나라의 발음과 비교하기도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음 위치 등을 설명해 주거나 왜 그런 발음이 나는지 설명해 주면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발음을 연습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한 L교사는 “읽기지문 듣기 파일을 들려주면서 단어의 강세와 문장에서의 억양을 익히고 따라하게 한다”고 하였다. M교사는 “발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가장 전통적인 최소 대립쌍이 되는 단어 위주로 영어 발음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발음을 반복하여 연습시키기 보다는 대학에서 배운 음성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발음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이는 대학에서 이수한 영어 음성학과 음운론 과목이 영어 발음 지도 실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 N교사는 “영상자료를 듣고 따라하게 한 후 학생들끼리 협력해서 발음을 향상시키는 것이 유익하므로 CD나 영상자료를 통해 발음을 먼저 듣게 하고 최대한 많이 따라하게 한다. 그리고 파트너끼리 이야기를 해

보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피드백을 해준다.”고 지적한 것처럼 동료들과의 협력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발음을 지도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O교사도 “단순히 듣고 반복하는 기계식이 아니라 롤 플레이나 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말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이 같은 발음 지도 기법은 학습자들에게 사회적 전략을 이용하도록 하여 동료들과 발음 연습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발음 전략 지도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 강하다는 본 논문의 양적 분석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업시간에 발음 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교사들의 지도방법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발음 지도에 대한 시간적 제약과 독해와 읽기 위주의 수업체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CD를 이용해서 반복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음성학적 규칙을 이용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짝을 지어 발음 연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전략을 발음 교육에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 개방형 질문은 교사로서 앞으로의 발음 교육의 방향에 관해 묻는 것이었다. 57명의 교사들 중 45명의 교사들은 영어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발음은 없으므로, 지나치게 정확성을 강조하거나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하도록 지도하기보다는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분절음의 정확성보다 초분절음의 유창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의사소통중심 발음 교육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Macdonald, 2002). 나머지 7명의 교사들은 영어를 두려워 하는 학생들을 위한 발음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P교사는 “영어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다. 특히 다른 부분보다 말하는 걸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발음이나 완벽한 문장구사가 영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발음을 지도할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해서 제공하며 학생들의 두려움을 최대한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영어에 두려움이나 영어 발음에 무서움을 느끼지 않

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Q교사는 “영어 발음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수업을 하여 아이들이 영어 발음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 다른 응답으로는 학생 스스로 발음을 잘 연습할수 있도록 교사의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발음 지도를 따로 진행하기 보다는 매 수업시간에 녹아들게 하여 발음 지도를 행해야 한다는 의견, 다양한 문화권의 영어 발음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교과서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이처럼 앞으로의 발음 지도에 대한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원어민과 같은 정확한 발음보다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없는 발음을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또 교사로서 학생들의 불안함과 거부감을 없애주면서 발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언어학습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드러내 보였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영어교사의 일반 신념과 성별에 따른 신념의 차이 및 경력에 따른 교사들 간 신념의 차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결과가 함의하는 교육적 시사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5.1 요약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영어교사의 신념이 어떠한지 그러한 영어교사의 신념이 성별과 경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설문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연구 참여 교사들은 영어 발음이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기능이며 수업시간에 영어 발음 교육을 비중있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학생들의 영어 발음은 원어민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 가능한 수준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과서 안팎으로 발음 지도 활용 자료들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음 지도를 위해 영어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음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원어민의 음성을 녹음한 테이프 사용과 교사 자신의 음성으로 시범을 보인 후 따라 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장 강세와 억양 및 리듬에 지도의 초점을 두거나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을 비교 설명하는 활동과 유창성에 기반을 둔 발음 평가 방법에 대한 신념도 비교적 높았다. 반면에 최소대립을 통한 발음 지도,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성 지도와 정확성에 의한 발음 평가 및 한국식 말투의 사용 여부에 의한 발음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음 학습전략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교사들의 신념에 관한, 학생들이 칭찬과 격려하며 도와주거나 긴장이나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정의적 발음 학습 전략 지도에 대한 신념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사회적 전략 지도, 인지적 전략지도 보충적 전략지도, 기억전략지도 순서로 신념의 평균값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상위 인지 발음 전략 지도에 대한 영어 교사들의 신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교사의 발음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성별 간에는 9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 교과서 속 발음 지도 자료가 적절하다고 한 문항, 의사소통 중심 발음지도 활동에 대한 문항, 한국식 말투에 의한 발음평가에 대한 문항, 연관된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연상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노래나 리듬을 이용하여 도와주는 기법, 발음을 반복해서 따라하도록 하는 기법,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짝을 지어 발음을 연습하도록 도와주는 기법에 대한 문항으로 총 9개 문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 중 6 문항에서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교사의 경력에 따라 발음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영어 수업 시간에 발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항,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제를 활용하는 기법, 문장의 강세와 억양, 리듬에 초점을 둔 지도, 학생들의 발음 오류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 연관된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노래나 리듬을 이용하여 도와주는 기법, 발음을 반복해서 따라 하도록 하는 기법, 발음을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짝을 지어 발음 연습하도록 도와주는 기법의 총 10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10개의 문항에서는 비숙련 교사들이 숙련 교사들보다 더 강한 신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57명중 27명의 5년 이상의 숙련 교사들은 발음지도에 대한 비중을 거의 두지 않고 있으며, CD나 음성 녹음테이프 혹은 자신의 음성을 따라 반복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명의 교사들이 음성, 음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발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한국어 발음과도 비교하면서 지도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30명의 비숙련 교사들은 대체로 발음지도를 다른 영어의 기능과 연관시켜 지도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동료끼리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에게 올바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다. 또한 그들은 팜송이나 영상으로 발음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게다가 두 집단은 모두 학생의 발음 수준이 원어민과 가까운 발음을 구사하는데 있는 것이라기 보다 의사소통 시 이해가능한 수준의 발음을 구사하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비숙련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의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정의적 전략 사용을 더 선호하였다.

5.2 교육적 시사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교실에서 영어 발음 지도를 위해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 논문에 참여한 영어교사들은 영어의 강세와 억양 및 리듬에 지도의 초점을 맞추고 강세와 억양의 유창성으로 학생들의 발음을 평가하는데 관심을 두는 반면에 영어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음 지도에는 비교적 약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문법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의사전달의 유창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음 교육에도 너무 초분절음 지도에 초점을 맞추면 분절음의 정확성은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어 교사로서는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성을 토대로 점차 강세와 억양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영어교사들은 대부분 학습자들이 상위 인지 발음 학습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zyszka(2015)는 영어 발음이 좋은 학습자들은 발음 학습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 또는 목표를 세우고 학습과정을 검토하는 상위 인지 전략들을 잘 활용하는 학습자라고 지적하듯이, 영어 발음을 지도하는 영어교

사들은 학습자들이 상위 인지 발음 학습 전략을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발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영어 발음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저마다 다른 발음 지도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들마다 다른 발음 지도 기법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발음 지도에 대해 더 강한 신념을 보임으로써 성별의 차이가 발음 지도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숙련 교사들과 숙련 교사들의 설문결과와 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비숙련 교사들이 발음지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칠 가능성이 높다. 정수경(2008)과 정미라(2010)가 지적하듯이 영어 발음을 중요하게 인식한 교사, 영어 발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교사일수록 영어 발음을 더 충실하게 지도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발음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숙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발음지도에 대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가 갖는 교육 이론과 실천에 대한 신념이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ichardson, 1996).

5.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논문은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해 중등 영어교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교사들의 성별과 경력별 차이가 발음지도에 대한 신념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비율에서 여자 교사들의 수가 많고 남자 교사들의 수가 적다는데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남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음 교육에 대한 신념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전국적인 영어 교사들의 신념 연구에 일반화

될 수는 없다.

앞으로 다수의 중학교 영어교사들이 갖는 영어 발음 지도에 관한 신념 연구를 함으로써 성별·경력별 신념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영어 발음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신념 연구를 벗어나 영어의 다른 기능에 대해 교사들이 어떠한 신념이나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신념연구는 결국 교사의 수업 실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의 학업 성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 인적 자원부. (2015). *영어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
- 강애진. (2004). *고등학교 영어교사의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철. (2009). *영어교사들의 문법교육 실태와 문법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성. (2005). *고등학교 영어교사의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훈. (2000). 의사소통 중심 영어 발음 지도법. *영어교육 연구* 21. 17-34
- 김종훈. (2013). 영어 발음교육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의 인식. *언어과학연구* 65. 47-78
- 김종훈. (2017). 예비 영어교사의 발음 학습전략 연구. *미래영어영문학회* 22(1). 243-268
- 김지원. (2014). *영어 문법 교수 및 학습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민. (2017). *의사 소통 기반 통합적·독립적 형태 초점 문법 교수법에 대한 영어 교사의 신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실. (2016). 초등 영어교사의 발음교육 인식 및 실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16(7), 783-805
- 신성철·박의재. (1994). *영어교수법*. 서울: 한신문화사
- 유신혜. (2002).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발음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영. (2017). *명시적·암시적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의 신념*. 한국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식. (1999). *장학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정미라. (2010). 우리나라 영어교사의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고찰.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9(1), 179-202.

- 정수경. (2008). 중등 영어 교사의 발음에 대한 인식과 교수에 관한 연구.
현대영미어문학회, 5, 69-73.
- 천태은. (1998). *초분절음소의 발음 중심 듣기학습이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종임. (1999).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영어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발음지도 방안. *교과교육학연구*, 3(2), 27-46.
- Avery, P., & Ehrlich, S. (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ker, A. A., & Murphy, J. (2011). Knowledge base of pronunciation teaching: Staking out the territory. *TESOL Canada Journal*, 28(2), 29-50.
- Borg, S. (2003). Teacher cognition in language teaching : A review of research on what language teachers think, know, believe, and do. *Language Teaching*, 36(2), 81-109.
- Borg, S. (2006). *Teacher cognition and language education :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Continuum.
- Borg, S. (2009). Exploring tensions between teachers' grammar teaching beliefs and practices. *System*, 37, 380-390.
- Borg, S. (2011). The impact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on language teachers' beliefs. *System*, 39, 370-380.
- Farrell, T. S. & Lim, P. C. P. (2005). Conceptions of grammar teaching : A case study of teacher's beliefs and classroom practices. *TESL-EJ*, 9(2), 1-13.
- Freeman, D. (2002). The hidden side of the work: Teachers' knowledge and learning to teach. *Language Teaching*, 35, 1-13.
- Freeman, D., & Richards, J. (1996). *Teacher learning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bert, J. (2008). *Teaching pronunci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tbonton, E. (2008). Looking beyond teachers' classroom behaviour:

- Novice and experienced ESL teachers' pedagogical knowledge.
Language Teaching Research, 12(2), 161-182.
- Harris, D. P. (1969). *Test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 Johnson, K. E.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s during literacy instruction for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4(1), 84-108
- Kagan, D. M. (1992). Implication of research on teacher belief. *Educational
Psychologist*, 27(1), 65-90.
- Katz, L. G. (1972). Developmental stage of preschool teacher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p. 50.
- Kenworthy, J. (1987).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 London : Longman.
- Kuzborska, I. (2011). Links between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s and
research on reading.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23(1),
102-128
- Macdonald, S. (2002). Pronunciation-views and practices of reluctant
teachers. *Prospect*, 17(3), 3-18.
- McNerney, M, & Mendelsohn D. (1992). Suprasegmentals in the
pronunciation class: Setting priorities. In P. Avery & S.
Ehrlich. (Eds.),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
185-19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Oxford, R.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bury House.
- Pajares, M. F. (1992). Teachers' beliefs and educational research: Cleaning
up a mess construc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
302-332
- Peterson, S. S. (2000). *Pronunciation learning strategies: a first look
Unpublished Research Report*.
- Richards, J.C., Li, B., & Tang, A. (1998). Exploring pedagogical reasoning

- skills. In J. C. Richards (Ed.), *Beyond training : Perspectives on language teacher*.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 Richardson, V. (1996). The role of attitudes and beliefs in learning to teach. In J. Sikula(Ed.), T. J. Buttery & E. Guyton (Eds.),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pp. 102-119). New York : Simon & Schuster.
- Richardson, V., Tidwell, D., & Lloyd, G.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s in reading comprehension instruc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Journal*, 28(3), 559-586.
- Shahriari, H. & Dastgahian, B. S. (2014). A descriptive overview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in Iranian high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4(2), 1-11.
- Sifakis, N. C. & A-M, Sougari. (2005). Pronunciation issues and EIL pedagogy in the periphery: A survey of Greek state school teachers' beliefs, *TESOL Quarterly*, 39, 467-488
- Szyszka, M. (2015). Good English pronunciation users and their pronunciation learning strategies. *Research in Language*, 13(1), 93-103.
- Tatto, M. T., & Coupland, D. B. (2003). Teacher education and teachers' beliefs: Theoretical and measurement concerns. *Advances in Teacher Education*, 6, 123-182.
- Tsui, A. B. M. (2009). Distinctive qualities of expert teachers. *Teachers and Teaching : Theory and Practices*, 15(4), 421-439.

<Abstract>

Secondary English Teachers' Beliefs in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

Kim, Chomin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This thesis aims to investigate Korean English teachers' beliefs in teaching pronunciation through a questionnaire and a written interview. Their general beliefs about English pronunciation teaching, gender difference and teaching experience difference in teaching pronunciation are specifically examin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ost participants agreed that English pronunciation is an important skill for communication, English pronunciation instruction should be conducted in class, and that students should be taught intelligible English pronunciation is not native-like pronunciation.

As for the methods used by English teachers for pronunciation teaching,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ronger belief in providing feedback on pronunciation errors or using a tape recording and demonstrating it with the teachers' own voice, showing a stronger belief in pronunciation evaluation method which emphasized sentence stress, intonation an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7.

rhythm, and a stronger belief in explaining comparisons of Korean and English pronunciation, while holding weak beliefs in teaching accurate produc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and in evaluating students' pronunciation based on their foreign accents.

Secondly, it was shown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in nine items such as native-like pronunciation, the appropriateness of teaching materials in a textbook, use of communication-based tasks, pronunciation evaluation based on foreign accent, helping students associate sounds using related pictures or photos, helping them remember sounds through music and rhythm, helping them repeat sounds, helping them review sounds regularly and pair work. Male teachers were found to have stronger beliefs than female teachers in most of the items.

Thirdl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ten questionnaire items like doing pronunciation teaching in English class, native-like pronunciation, use of communicatively based-tasks, focus on stress, intonation and rhythm, responding to pronunciation errors, helping students associate sounds using pictures or photos for memory, helping them memorize sounds using music and rhythm, helping them repeat sounds, helping them review sounds and pair work, in which unexperienced teachers showed stronger beliefs than experienced teachers.

Finally, the interview data revealed that most of the participants performed activities such as using CD or recording tape or repeating their voice. Six of the experienced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taught students English pronunciation based on the phonetic and phonological theories. Thirty unexperienced teachers suggested that pronunciation should be taught in relation to other skills of English, and that they provide an opportunity for peers to talk to each other and provide correct feedback to each other. They also showed that when they taught pronunciation using

pop songs or videos, they stimulated students' interest and learn naturally. In addition, both groups agreed that the pronunciation level of a student should be that of pronunciation that is intelligible in communicating rather than being close to a native speaker. However, unexperienced teachers preferred using a positive strategy to consider students' positive aspects.

부 록

부록1.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교사 신념 설문지

설문지

본 설문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선생님들께서 평소 영어 발음이나 발음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수업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발음을 지도하시는 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의 결과는 본 연구의 통계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인적사항

1. 성별 : 남 (), 여 ()
2. 나이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3. 경력 : 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15년 미만 (), 15년이상 ()

II. 설문

다음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해 주세요.

- 1 영어 발음은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기능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 학생들의 발음은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게 구사해야 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 학생들의 발음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4 영어 수업 시간에 발음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5 영어교사는 수업시간에 발음을 비중 있게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6 영어 교육 현장에서 발음 지도에 활용될 수 있는 교실 밖 실물 자료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7 영어 교과서의 발음에 대한 지도 자료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8 발음지도 시, 원어민의 음성 CD를 활용하여 반복시킨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9 발음지도 시, 나 자신의 음성으로 시범을 보이고 따라 하게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10 발음지도 시, 영어와 한국어 발음을 비교하여 설명해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11 발음지도 시, 사전 속의 발음기호를 숙지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12 발음지도 시,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성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둔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13 발음지도 시, 영어의 최소 대립어를 연습하고 구분하는데 초점을 둔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14 발음 지도 시, 게임, 노래, 역할극 등,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제들과 함께 지도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15 발음지도 시 연음 등, 음운현상을 연습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16 발음지도 시, 문장의 강세와 억양, 리듬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둔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17 발음지도 시, 학생들의 발음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18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발음을 평가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19 학생들이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발음을 평가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0 문장의 강세와 억양의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발음을 평가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1 학생들이 단어의 발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와 연관되는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연상하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2 학생들이 단어의 발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음성학적 특징이나 규칙을 이용하여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3 학생들이 단어의 발음을 기억하게하기 위해 노래나 리듬을 통해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4 발음지도 시, 학생들에게 단어의 발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하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5 학생들에게 발음지도 시, 최근에 배웠던 발음을 규칙적으로 복습하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6 학생들에게 발음지도 시, 발음규칙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7 학생들에게 발음지도 시, 영어 녹음테이프를 이용하여 발음을 따라하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8 학생들이 음성학적으로 특히 어려워하는 발음을 하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29 학생들에게 발음지도 시, 모르는 단어의 발음은 한글로 적을 수 있게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0 학생들이 단어의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단어와 최대한 비슷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1 학생들이 단어의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단어의 발음을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2 학생들이 발음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3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음을 주의를 기울여 듣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4 학생들이 집에서 스스로 발음 공부를 하는 계획을 짜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5 학생들이 스스로 발음공부에 대한 목표를 세울수 있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6 학생들이 어려운 단어의 발음을 하려고 노력할 때,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7 학생들이 발음을 잘못했을 때, 긴장이나 두려움을 풀어주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8 학생들이 발음 오류를 범했을 때, 발음을 고치는 것을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39 학생들이 발음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함께 해결하는 것을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 40 발음지도를 할 때, 학생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발음 연습을 하도록 도와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Ⅲ. 서면 인터뷰

1. 학교 수업에서 차지하는 발음 지도의 비중은 얼마나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십시오.
2. 수업시간에 발음 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지도 방법이 있다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3. 앞으로 교사로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발음 교육의 방향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